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추석 맞아 함열 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구슬땀

✎ 오명관 기자 ① 승인 2026.09.22 15:21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용)는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 익산 함열시장을 방문해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대목장을 맞아 활기를 띤 함열시장을 찾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지사 직원들은 풍성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사업의 혜택과 가입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시장을 찾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만65세~84세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할 경우,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제공하고, 영농기반이 필요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공급하여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지를 전량 매도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이 지급된다.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할 경우에는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 및 농지 임대료와 더불어 1ha당 매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요건이 기존 '최근 10년간 중단없이 영농을 계속한 자'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용 익산지사장은 "풍성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활기 넘치는 함열시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제도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평생 농업에 헌신하신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를 돕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을 육성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